

CIS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및 유망 프로젝트



CONTENTS

목 차

요약

I. CIS 시장의 성장 잠재력 / 1

II.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 / 4

III. 경쟁국의 경제협력 현황 / 13

IV. 한-CIS 경제협력 확대방안 및 진출사례 / 19

결론 / 34

요 약

- CIS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독립된 지역연합체로 출발, 점차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중임
 - 2000년 이후, 러시아의 주도로 관세동맹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창설하면서 향후 세계 GDP의 약 3%를 차지하는 2억 7,000만 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CIS 시장은 넓은 영토와 함께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림자원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의 교두보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교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교역과 투자 모두 편중이 심함
 - 2011년 기준, 한국의 對 CIS 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265억 달러를 기록,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교역액과 비교해도 약 13% 증가하였음
 - 주요 3국(러시아, 카자흐, 우크라이나)의 교역액 비중은 전체의 약 90%(2011년), 투자는 약 84%(2011년 누계)로 국별 편중이 심함
- 교역에 있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핵심산업(우주항공, IT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프로젝트는 인프라 건설, 통신,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기대됨
- CIS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교역과 더불어 직접투자와 프로젝트 진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CIS 특유의 비즈니스 관습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I. CIS 시장의 성장 잠재력

1. CIS 개관

가. 형성배경 및 구성

- ☐ 소비에트 연방 해체(1991.12.) 이후, 구연방 구성국들간 독립된 지역 연합체 합의에 따라 창설
- 1980년대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 및 개방정책에 따라 민주화 움직임 대두되었고 1991년 8월,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연방 탈퇴선언으로 인해 소련해체 가속화
- 1991년 12월,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화국 지도자들이 소 연방 해체에 합의, 독립된 국가연합체(CIS) 창설에 합의
- ☐ 과거 소비에트 연방 구성국 중 발트 3국 및 조지아(그루지야)를 제외한, 총 11개국으로 구성(2011년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준회원국 자격)
- 회원국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11개 국임
- 조지아(그루지야)는 연합체 창설 약 3년 뒤인 1994년 3월에 가입하였으나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연합에서 탈퇴

나. 발전과정

- ☐ 역내 정치 공동체에서 출발,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서 갈등 심화
- 소련 해체 이후, 지역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가별로 안정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협력차원에서 출발

- 1990년대 경제 위기로 일부 회원국들이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공동체 내부 결속력 약화, 서유럽과의 관계 및 자원 교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하기도 하였음

□ 2000년대 이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 경제통합 모색

- CIS 관세동맹('96)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01) 설립, 회원국간 관세혜택 및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한 상호 교역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간 3국 관세동맹('09)이 출범하고 교류 대상을 서비스 및 자본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EU와 같은 역내 정치·경제 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 대두됨

2. CIS 시장의 경제적 중요성

가. 자원 보유국 및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

- 넓은 영토 보유, 화석 연료(석유, 석탄, 석유) 및 목재 등의 천연자원 다량 보유, 주요 자원 협력국으로서의 중요성 증대되고 있음
- 세계 영토의 16.4% 차지하여 특히, 러시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미개발지역이 많아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세계 석유 매장량의 20%, 천연가스의 40%, 석탄의 20%, 산림자원의 25% 보유, 러시아는 세계 담수의 11% 가량을 보유하고 있음
- CIS 공동체의 경제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아직 미미함
- 2010년 기준, 세계 총인구의 4%(약 2억 7,500만) 및 GDP의 3.1%(약 2조 달러) 차지함
-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국은 중국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 보유, 구매력 있는 시장으로 평가됨

<CIS 국별 주요경제지표>

연번	국가	인구	GDP	1인당 GDP
		(천 명)	(백만 달러)	(달러, PPP)
1	러시아	141,750	1,479,819	19,891
2	우크라이나	45,871	137,929	6,721
3	카자흐스탄	16,316	142,987	12,169
4	벨라루스	9,490	54,713	13,929
5	아제르바이잔	9,048	51,092	9,936
6	우즈베키스탄	28,160	38,982	3,106
7	투르크메니스탄	5,042	21,074	8,274
8	아르메니아	3,092	9,371	5,463
9	몰도바	3,562	5,808	3110
10	타지키스탄	6,879	5,640	2,163
11	키르기즈스탄	5,365	4,616	2,239
-	CIS전체	274,575	1,952,031	7,909(평균)

자료 : 세계은행(2010년 기준)

나. EU에 버금가는 단일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 2010년 1월부로 CIS 내 교역의 약 40%를 점유하는 주요 3국(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간 관세동맹이 체결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CIS 단일 경제권의 구성이 가시화 됨
-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단계적으로 관세 적용 예외품목을 줄이고 통합관세를 적용하는 단계에 있으며 ‘공동경제구역’ 창설에 합의(2012.1.)함에 따라 단일시장 구상은 점차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이어 키르기즈스탄의 가입이 확정되고 준비 절차가 진행중(2010.10.)이며 러시아가 CIS 인구 기준 2위, GDP 기준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적극적이어서 향후 3국 관세동맹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러시아는 정치적 자주권은 유지하되 경제 통합의 단계는 넓혀가는 방향에서 2015년까지 현재의 유럽연합(EU)와 비슷한 형태의 통합체인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II.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가. 개관

- 2011년 기준, 한국의 對 CIS 교역은 2010년 동기(221억 달러)대비 20.1% 증가한 26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144억 달러를, 수입은 작년 동기대비 8.4% 증가한 12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일반 가전(TV, 냉장고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12년 1월~4월 기준, 교역액은 작년 동기(79억 달러) 대비 약 11.7% 증가한 88.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 총 교역액은 작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기준, 국별로는 러시아가 전체 CIS 교역액 265억 달러의 79.6%인 21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3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교역액 비중은 90.5%인 240억 달러임

<한-CIS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4)
수출 (증가율)	13,525 (20.3)	6,470 (-52.2)	10,972 (69.6)	14,479 (32.0)	5,051 (18.2)
수입 (증가율)	9,803 (22.6)	6,858 (-30.1)	11,150 (62.6)	12,087 (8.4)	3,810 (4.3)
총액	23,328	13,328	22,122	26,566	8,861

자료 : 무역협회 통계자료

나. 주요국별 교역동향

1) 러시아

- 2011년 기준, 대 러시아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 총 교역규모는 200억 달러 돌파하는 등 성장기조를 보임
- 2011년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2.8% 증가한 103억 달러, 수입은 9.7% 증가한 108억 달러를 보임
-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대 러시아 수출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20% 이상씩 증가함
- 2007년 이후 원자재 및 자원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및 기계류 수출 호조에 따라 대 러시아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對러 교역은 2009년 이후 적자를 보임

<한-러시아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증가율)	8,088 (56.2%)	9,748 (20.5%)	4,194 (-57%)	7,760 (85%)	10,306 (32.8%)
수입 (증가율)	6,977 (52.6%)	9,340 (19.5%)	5,789 (-30.6%)	9,899 (71%)	10,855 (9.7%)
교역수지	1,111	408	-1,595	-2,139	-549

자료 : 무역협회 통계자료

- 對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가전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임
- 천연자원 수입과 소비재 수출이라는 교역 구조에서 탈피, 신재생 에너지, 의료기기, 문화상품 등으로의 품목 다변화가 주요 과제임

<2011년 對 러시아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수출			수입		
	품목(수출)	금액	증가율	품목(수입)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2,666	41.3	원유	3,662	-7.8
2	자동차부품	1,354	77.1	유연탄	1,544	84.5
3	선박	609	0.3	천연가스	1,053	28.7
4	합성수지	584	30.1	나프타	923	9.1
5	화물자동차	497	171.6	철괴 및 스크랩	773	71.5
6	건설중장비	461	145.2	고철	482	54.5
7	칼라TV	245	-20.5	우라늄	275	58.9
8	무선전화기	155	-39.4	명태	245	0.2
9	기타플라스틱제품	137	22	무연탄	237	199.1
10	타이어	116	63.2	합금철	179	7

자료 : 무역협회 통계자료

2) 카자흐스탄

-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교역은 2004년 이후 급격히 상승 이래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30%가량 하락하였으며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줌
- 1996년 최초로 1억 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 2억 달러 대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 2011년 기준 약 15억 달러 규모임
-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 모두 교역은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나 이듬해인 2010년 수출과 수입 모두 95%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한국은 전통적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약 2~3억 달러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며 이는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경제 위기 시기에도 유지되었음

<한-카자흐스탄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증가율)	802 (33.8%)	698 (-13.0%)	474 (-32.1%)	938 (97.8%)	888 (-5.3%)
수입 (증가율)	545 (68.6%)	347 (-36.3%)	308 (-11.4%)	604 (96.2%)	647 (22.72%)
무역수지	257	351	166	334	241

자료 : 무역협회 통계자료

- 對 카자흐스탄 수출은 소비재 품목 중심이며 수입은 금속류의 광물자원 비중이 높음
-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합성수지, 칼라TV, 기계류 순으로 나타나며 수입은 알루미늄, 동괴, 합금철, 기타 비철금속 순으로 나타남
- 최근 2년간 한국산 승용차 및 가전 부품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타 품목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11년 對 카자흐스탄 주요 교역품목>

단위 : 천 달러, %

연번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116,266	190.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09,666	-1.5
2	합성수지	102,205	14.1	동괴및스크랩	86,581	466.6
3	칼라TV	90,108	211.7	합금철	73,450	-32.1
4	기타기계류	34,447	514.6	기타비철금속제품	51,935	472.2
5	건설중장비	28,378	81.8	은	20,107	-
6	화물자동차	25,552	118.9	열연강판	14,294	-27.5
7	자동차부품	20,717	95.2	동물성한약재	8,999	1,253.3
8	진공청소기	16,551	37.9	연괴및스크랩	5,736	-88.8
9	평판디스플레이	15,362	193.2	기타정밀화학원료	2,807	24.4
10	아연도강판	14,223	12	아연괴및스크랩	2,742	-20.8

자료 : 무역협회 통계자료, 2011년 기준

3) 우즈베키스탄

- 對 우즈베키스탄 교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부터 10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2011년 1-12월 교역량은 약 17억 2,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6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함

<한-우즈베키스탄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증가율)	748 (15.3)	1,123 (50.0)	1,150 (2.4)	1,439 (25.1)	1,719 (19.5)
수입 (증가율)	104 (159.2)	263 (153.2)	47 (-82.0)	22 (-53.6)	40 (81.2)
전체	852	1,386	1,197	1,461	1,759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1년 1-12월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17억 1,900만 달러를 기록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자동차 관련제품(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으로 총 수출액 중 60%이상을 차지
- 자동차 관련 제품을 제외한 주요수출 품목으로는 합성수지(7천 8백만 달러), 편직물(4천 8백만 달러), 기타가구(3천 5백만 달러), 냉연강판(2천 4백만 달러) 등으로 나타남
- 2011년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입은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1.2% 증가 하였으며 면사, 면직물, 천연섬유원료 등 원면관련 제품이 주종을 이룸
- 1억 달러를 상회했던 지난 2007년과 2008년 수출금액과 비교했을 때 전체 수입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2011년 對 우즈베키스탄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자동차부품	750	3.6	우라늄	17,177	-
2	원동기	204	27.8	면사	12,394	11.6
3	승용차	116	20.9	순면직물	3,910	-1.8
4	합성수지	78	-15.1	식물성한약재	2,553	66.0
5	용접기	52	2,394	질소비료	1,794	326.9
6	편직물	48	-1.4	천연섬유원료	537	-80.9
7	기타가구	35	65.4	과실류	397	367.0
8	펌프	26	302.5	원동기	334	36,991.4
9	냉연강판	24	26.3	원목	209	-
10	기타산업기계	24	640.3	플라스틱금형	91	-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4) 우크라이나

□ 2011년 기준, 한국의 對 우크라이나 수출은 10억 달러, 수입은 7억 달러를 기록, 총 교역규모는 17억 달러를 기록

- 양국간 교역은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상승세에 있었다가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급격히 축소되고 한국 제품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對 우크라이나 무역수지는 2007년 이후 감소세에 있음

<한-우크라이나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증가율)	1,546 (74.8%)	1,773 (14.7%)	426 (-76%)	714 (67.5%)	1,022 (43.1%)
수입 (증가율)	295 (34.9%)	824 (179.8%)	793 (-3.8%)	780 (-1.7%)	733 (-6%)
전체 (무역수지)	1,252	949	-367	-66	289

자료 : 무역협회 통계자료

- ☐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제품, 전자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철강, 광물자원(우라늄 등) 및 선박으로 나타남

<2011년 對 우크라이나 주요 교역품목>

단위 : 천 달러, %

연번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311,039	40.7	강반제품	371,665	-7.4
2	자동차부품	104,259	76.9	합금철	97,531	-22.4
3	반도체	86,315	1,347,732.7	우라늄	62,835	-
4	합성수지	59,356	-8.3	유연탄	44,339	-
5	합금철	56,424	870	선박	26,610	-0.1
6	아연도강판	34,590	79	무선통신기	21,295	6427.3
7	냉장고	29,717	-16.2	선철	18,407	-38.7
8	타이어	27,228	53.3	비철금속	14,160	32.5
9	무선전화기	25,109	-12.4	무연탄	12,839	-
10	원동기	21,105	45.8	안료	10,879	61.5

자료 : 무역협회 통계자료

5) 아제르바이잔

- ☐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간 총 교역규모는 약 2억 달러 내외 수준임
- 2011년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한 2.1억 달러, 수입은 30만 달러 규모임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중심으로 대 아제르바이잔 수출은 경제위기 이후 연 평균 약 20%씩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다른 CIS 국가에 비해 저조한 편임
 - 양국간 교역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품목별로는 소폭 늘고 있는데 반해 전체 수출액이 연간 2억 달러 내외에 머물러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됨

<한-아제르바이잔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증감율)	130 (175.2)	255 (95.5)	150 (-41.3)	184 (23.1)	217 (18.3)
수입 (증감율)	316 (-)	12 (-96.2)	9 (-25)	0 (-)	0 (-)
전체	446	267	159	184	217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에 자동차와 합성수지 등을 주로 수출하고 광물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경우, 승용차, 자동차 관련 품목(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건설 중장비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 이에 반해 수입 품목은 동광 및 화학제품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편임

<2011년 對 아제르바이잔 주요 교역품목>

단위 : 천 달러, %

연번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127,502	7.9	동광	0.1	-
2	화물자동차	15,481	32.3	화학제품	0.1	-
3	합성수지	14,125	40.5	-	-	-
4	건설중장비	8,489	769.7	-	-	-
5	컴퓨터기기	8,431	98,509.1	-	-	-
6	운반기계	4,419	-8.0	-	-	-
7	자동차부품	3,426	125.7	-	-	-
8	에어컨	2,893	74.8	-	-	-
9	타이어	2,844	1,570.9	-	-	-
10	무선전화기	2,811	-9.3	-	-	-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2. 투자

- 2011년 누계 기준, 한국의 對 CIS 투자는 약 48억 달러임
 - 국별로는 카자흐스탄이 약 19.4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러시아(18.8억 달러), 우즈베키스탄(5.9억 달러), 우크라이나(2.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주요 2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의 투자액은 약 38.2억 달러로 전체 누계액의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를 더한 주요 4개국은 46.7억 달러로 전체의 97.2%를 차지하는 등, 국별 투자액 편중이 교역과 마찬가지로 심한 모습을 보임
- CIS 국가들의 對 한국 투자액은, 2011년 누계기준으로 8,900만 달러로 한국의 CIS 투자액의 약 1.8%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이 보유한 해외 투자자금의 한국 유치에 균형적인 한-CIS 경제협력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CIS 국별 투자 내역(누계기준)>

(단위 : 천 달러, 건)

연번	국가	한국 → CIS		CIS → 한국	
		송금횟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1	카자흐스탄	903	1,941,702	73	4,394
2	러시아	1,559	1,888,948	531	56,478
3	우즈베키스탄	558	592,640	347	20,098
4	우크라이나	63	251,771	18	1,735
5	키르기즈스탄	327	79,799	88	6,066
6	타지키스탄	36	59,742	-	-
7	아제르바이젠	39	4,185	2	108
8	아르메니아	2	63	-	-
9	투르크메니스탄	2	33	-	-
10	벨라루스	0	0	3	126
-	합계	3,489	4,818,884	1,062	89,005

주 : 몰도바는 투자 통계 없음, 자료 :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해외투자통계

Ⅲ. 주요국의 경제협력 현황

1. 중국

<러시아>

- ☐ 중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산림자원과 같은 러시아의 주요 자원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인 협력관계에 주력하고 있음
- ☐ 자동차 및 가전과 같은 주요 소비품목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러시아 내수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

<카자흐스탄>

- ☐ 2008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주요교역 대상국으로 급부상중이며 2010년 기준, 카자흐스탄 전체 교역의 약 12%를 차지함
- ☐ 2009년 카자흐스탄은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상당의 자원 및 전력 프로젝트 개발사업 투자를 지원받은 바 있음

<우크라이나>

- ☐ 2008년 이후 중국은 러시아, 독일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3대 수입 대상국으로 성장하였음
- 2009년부터 2011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매년 30% 이상 증가, 총 수입액은 2배 이상 성장한 62.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독일(68억 달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
- 對 중국 교역의 급격한 증가는 경기침체로 수입업자들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전, 기계, 의류, 가구, 완구, 자동차 등 거의 전 품목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임

- 최근에는 막대한자금력을 바탕으로 정부나 기업의 프로젝트 및 직접투자 분야에서의 진출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아제르바이잔>

- 경공업 분야에서는 진출이 활발하나 기타 분야는 소규모 투자
 - 경공업을 제외한 타 분야에서는 통신 사업에 소규모로 참여하는 정도이며 이외 사업분야로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 아스트라-마살리 고속도로 공사 입찰에 China Railway가 참여하는 등, 2010년부터는 도로공사 입찰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소규모 원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도 참여중임

2. 미국

<카자흐스탄>

- 에너지 · 통신분야 집중 투자
 - 2007년 미국의 투자 비중은 카자흐스탄 전체 외국인 투자의 24.6%였는데 미국 회사들은 1993년부터 매년 평균 14억 3천만 달러의 투자를 해왔으며 석유, 가스,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통신, 전기에너지 분야에 집중함
- 카자흐스탄의 시장 개방성 확대 및 시장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협력관련 투자가 활발한 추세임
 - 미국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205억 달러 규모의 기술 협력과 투자를 제공한 바 있음
 - 2006년 카자흐스탄은 미국 정부의 국제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며 2009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국 USAID와 투자하여 경제 여건을 개선시킬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예산을 기존의 1,5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우크라이나>

- 2011년 기준, 미국의 對 우크라이나 수출액은 약 26억 달러, 수입액은 11억 달러임
- 주요 교역품목은 수출의 경우 원유, 자동차, 기계류 등이며, 수입은 철광석 및 기타 광물자원으로 나타남
- 2011년 누계 기준, 미국의 對 우크라이나 투자액은 10억 달러로 나타남
-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2.6억 달러), 무역업(1.7억 달러), 호텔 및 외식업(1.3억 달러), 리스업종(2.2억 달러) 등이며 농가공업 및 식품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투자 기업은 카길(농업 및 농가공), 코카콜라(음료), 크래프트(식품) 맥도날드(요식) 등임

3. 일본

<러시아>

-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CIS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나 199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 철수하였음
- 최근에는 제조업(자동차) 중심으로 한 수출 및 투자분야에 본격적 재진입하고 있으며 현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음식에 대한 높은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식당 체인점 진출도 활발한 편임

<우크라이나>

- 과거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자동차와 가전 등에서 한국과 중국이 성장하면서 교역 증가폭은 타 국가들에 비해 부진

- 현대자동차가 2011년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나 자동차는 전체 일본의 對 우크라이나 수출액(약 10억 달러)의 약 67%를 점유하는 대표 품목임
- 자동차 이외의 주요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의료기기, 기계류, 의약품, 가전 등임

☐ 프로젝트나 투자 진출은 타 CIS 국가들에 비해 부진한 편임

<아제르바이잔>

- ☐ 대부분 일본상사가 주축이 되어 일본에서 제공하는 ODA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
- 슈발란 400 메가 와트 발전소에 미쓰비시에서 발전 설비 공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의 발전 산업 중장기전략 수립을 도요엔지니어링에서 수행
- ODA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및 선정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어고 실제로도 일본 기업이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함
- 2011년까지의 누계 투자 금액은 약 1억 3,000만 달러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광산개발, 자동차 정비 또는 수리, 기계 제조업 등임

4. 유럽

<러시아>

- ☐ 유럽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전통적으로 경제, 문화 분야에서 교류가 깊음
-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를 주로 유럽에 수출하며 러시아는 유럽의 고급 브랜드 상품, 기계, 식품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편임, 특히, 아샨(Auchan)를 비롯한 유럽계 유통업체의 진출도 활발함

- 이 밖에도 유통, 금융(은행 및 보험) 등 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카자흐스탄>

- 2002년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교역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함
- 유럽은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첫 번째로 교역을 시작한 지역이며 교역량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카자흐스탄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석유와 가스이며 2007년에는 위 품목들이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함
- 러시아가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자원을 통제함에 따라 유럽지역의 오일과 가스 공급국가로서의 카자흐스탄의 입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우크라이나>

-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교역국으로서 2011년 기준, 연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의 국가로는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등임
- 유럽의 주요 수출품목은 국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기계류,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경우, 2011년 러시아에 이어 제2위 수입 대상국으로 기계, 자동차, 가전, 제약 및 기타 소비재 분야에서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품질, 근거리로 인한 물류이점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최대 경쟁국임

4. 기타

<아제르바이잔>

- 터키는 非유전 및 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제르바이잔에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음
- Baytur(터키 5위권 종합건설사) 등 다수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 민족적 동질성을 활용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중임

IV. 한-CIS 경제협력 확대방안 및 진출사례

1. 수출 유망상품

가.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2011년 품목별 통계 기준,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은 CIS 지역 주요국 수출액에서 약 15%~50%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위 품목 1~2위를 점유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의 현지 공장 및 물류센터(쌍트페제르부르크) 준공에 따른 현지 진출 본격화, 내수시장 판매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 CIS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관련품목에 대한 수요 역시 동반 상승이 예상됨
- 러시아의 2011년 승용차 시장은 전년대비 39% 성장하였고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수입 자동차 판매 순위 2위(약 16만 4천대)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11.9%를 기록하였음
- 우크라이나의 2011년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하였고 현대자동차는 우크라이나 신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함

<2011년도 CIS 주요국별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교역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승용차 (비중)	2,666 (25.8)	116 (13.1)	116 (6.7)	311 (30.4)	127 (58.5)
자동차부품 (비중)	1,354 (13.1)	20 (2.3)	750 (43.6)	104 (10.2)	4 (1.8)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 안은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나. 정부 중점 육성산업 품목

□ 의료분야(의료장비 및 서비스)

- CIS 국가들의 보건 의식 수준은 높은데 반해 의료시설 및 장비는 노후화가 심해 정부 주도로 의료산업 현대화를 추진중임
- 러시아는 2006년에서 2009년에 걸쳐 정부보건 프로젝트에 1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이후에도 ‘의료장비 생산 프로그램 2020’과 같은 중장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의료기기는 약 31억 달러(2009년 기준) 규모로 추정되는데 전체 제품의 약 8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조달에 의한 수요가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요의 의료환경 개선 사업은 매우 영향력이 큼
- 러시아 의료산업 현대화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연구 기업을 육성하여 첨단 의료기기의 자국생산 비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러시아의 의료장비 생산 프로그램 2020>

지표	단위	합계	2011	2015	2020
기술혁신 기업	개	85	-	39	85
의료장비 R&D 센터	개	7	-	2	7
첨단기기 자국생산비율	%	29.7	10.7	12	29.7
의료기기 수출 가치	십억 루블	39.7	-	0.19	17.4
신기술 의료기기 제조 가치	십억 루블	200	-	3.6	78.3

자료 : CIS 미래시장을 잡아라 (KOTRA 단행본, 2011.12.)

- 카자흐스탄 정부의 장기 계획은 2020년까지 보건분야 지출을 GDP의 4%까지 확대하고 병원, 진료소, 실험실, 의료과학 개발시설에 의료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카자흐스탄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의료시설 확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약 5,900만 탱게(29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 정책관련 정보는 카자흐스탄 보건부(www.mz.gov.kz)에서 확인 가능
-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의료장비 판매업체에 의하면 우즈베크의 의료장비 및 기기 시장규모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및 장비 시장은 최근 연간 10~15%의 성장을 보이는데 정부주도의 의료부문 개혁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성장 추세는 향후 약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전에는 독일과 스위스 같은 유럽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초음파 기기와 심전도 기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EDAN社를 비롯한 중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진출 주요 의료장비 수출 기업>

회사명	품목	원산지
Norvale Trading	의료냉동장치	미국
Logio 5	의료 진단용 기기	미국
Krimer Industry	외과용 기구	영국
On Line Datensystem	컴퓨터와 드라이버	독일
RECK-Technik GMBH	재활장비	독일
DMS	의료 진단용 기기	프랑스
Schiller	의료 진단용 기기	스위스
Livam	의료 연구용 기기	러시아
Altonika	의료 진단용 기기	러시아
Toyota Tsusho Corporation	의료 연구용 기기	일본
Aloka	의료 진단용 기기	일본
EDAN	의료 진단용 기기	중국

자료 : 타슈켄트 무역관 바이어 인터뷰

-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기 시장은 약 5억 달러(2010년 기준)로 추정되는데 2008년 이후로는 감소세에 있음
- 진단용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편이며 실험용 의료 장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신 고가의 의료장비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제품보다는 중고장비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음
- 공공병원의 의료기기 구매는 모두 정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필수임
- 사립병원은 전체 의료시설의 20%를 차지하며 지난 7년간 수에 있어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법규정의 한계로 인해 의료기기 보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 쓰던 기기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소량은 자체적으로 구매하기도 함

□ 산업현대화 핵심산업 품목

- 주요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 우주 기술, 의료(의료기기 및 의약품), IT(전략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임
- 러시아 등 CIS 국가들이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산업 현대화 과정에서 기존 노후장비 교체와 함께 신규 수요 증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CIS 지역이 언어 장벽, 물가수준, 비즈니스 리스크 3가지가 높은 3高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한다면 진입장벽이 크지만 한편으로 시장 경쟁이 덜 치열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 바이어 발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역을 바탕으로 주 바이어가 CIS 전역에 판매망을 가진 경우가 있어 대규모 구매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음

2. 유망 협력사업 및 프로젝트

가. 러시아

☐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 러시아 정부는 2018년까지 주요 도시간 고속 철도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주요 구간은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 예카테린부르크임
- 고속철도 운영 국가의 하나인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으며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 건설에 현대중합상사가 참여중

☐ 2020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 근교 교통시스템 발전 프로그램

- 모스크바시 정부와 모스크바 주 정부의 참여하에 2020년까지 모스크바 근교 및 모스크바 교통시스템 발전 프로그램은 시 및 주 정부는 주차시설 및 교통망 현대화, 인공지능 도로관리시스템 운용 등을 포함한 교통시스템 발전 프로그램 추진중
- 제시된 프로그램 정책에는 주차 시설 및 교통망 현대화, 여러 교통수단의 통합화, 지역 및 도시간 수송 시스템, 모스크바 철도 여객 시스템이 포함되었으며 대도시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도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근교도시 운행버스 통합 관리망 구축이 거론됨
- LG상사 등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들의 참여 및 수주를 위한 제고가 필요함

☐ 2008-2012년 러시아 남부지역 발전 프로그램

- 상대적으로 개발이 저조한 러 남부지역(체첸지역 일대 / 잉구셰티야, 아디게야, 칼미키야, 카라체보-체르케씨야, 북 오세티야-알라니야,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그리고 다게스탄과)에 산업 및 제반 시설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진행중임

- 프로그램의 역점은 산업 및 농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엔지니어-인프라 구축을 실행하는 것과, 전자재 생산, 광물자원 채굴, 수송시스템 발전, 정수 시설, 중앙난방, 온수 및 가스 공급, 전력 시설 공급을 완료하는 것임
- 특히, 관광-레크레이션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위해 연방예산 자금이 도로 건설, 스키리조트에 대한 전력 송전망 구축에 투입되며, 민간 투자가 호텔 단지 건설, 서비스 시설 건설에 투입됨

나. 카자흐스탄

☐ 종합 의료서비스 진출 사업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의 의료시설을 확충, ‘국민 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음
 - 보건 환경개선은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함에 따라, 약 5년에 걸쳐 총 26억 달러 규모의 병원 건립 및 보건환경 개선 관련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병원건설 뿐 아니라 의료시스템, 의료부자재, 의사 진출, 의약품 등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연관 효과가 기대됨
- 한국은 전반적인 의료 기술수준 및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 인도 등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러시아 및 중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여개의 국내 의료기관이 카자흐스탄과 협력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명의 고려인과 1,5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의학에 친숙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한의학이나 퓨전의학 분야 또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음

<참고사항 : 'Salamaty Kazakhstan' 프로그램>

- 기간 : 2011-2015년 (총 2단계로 구성)
- 범위 : 카자흐스탄 전 지역
- 예산 : 총 26억 달러 내외
 - . 정부예산 : 약 24억 달러
 - . 지방예산 : 약 1,900만 달러
 - . 기타투자 : 약 1억 4,400만 달러
- 프로그램 목표 : 카자흐 국민들의 건강 개선 (평균수명 확대)
- 프로그램 과제
 - . 국민의 건강 개선을 위해 부처간, 기관간 협력강화
 - . '통합적 국가건강 시스템' 개발
 - . 의료 및 제약분야의 교육 강화
- 주요내용 : 헬스케어 시설(병원 등) 37개 건립
(8개는 현재 추진 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다. 우즈베키스탄

□ 운송 및 통신 인프라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운송, 통신 등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약 7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분야별 투자 규모는 도로 및 교통시스템 개선에 약 34억 달러, 철도운송분야 개선에 약 16억 달러, 항공운송분야에 6.5억 달러, 기타 통신 관련 기술 도입에 12.5억 달러 등임
- 국내도로와 국제고속도로를 포함해 2306km에 달하는 도로의 신규 건설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 및 1030km의 철로 현대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타슈켄트, 안디잔, 페르가나, 비쉬켄, 테르메즈 지역이 주요 연결 노선으로 알려져 있음

- '2011~2015 산업 발전 프로그램'에 포함된 인프라 투자계획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자재 수입시 2016년 1월까지 부과세 및 관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프로젝트 진행시 건설 중 장비 및 건설자재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라. 우크라이나

□ 에너지 효율화 관련 프로젝트

- 우크라이나는 주요 에너지를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며, 특히 러시아에서 파이프 운송을 통해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수입가격이 원유가격 상승에 연동돼 계속 인상되면서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부담이 됨
- 우크라이나 에너지 효율청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향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09년에는 차액보전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참고사항 : 우크라이나의 2011년도 에너지효율화 정책성과>

- 2011년 상반기 기준, 8억m³의 천연가스 소비 절감
-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 꾸준히 증가
 - * 3억 4,000만kwh(2011년) → 10억kwh(2012년 전망)
-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금융 지원폭 확대
 - . 에너지 전략에 대한 금융지원 협정에 따라서 3,100만 유로 지원 (2011.09.)
 - . 동유럽 에너지효율 및 환경협력(E5P)에 따라서 추후 7개 프로젝트에 3,100만 유로 규모의 자금 추가로 지원 예정
- 동 계획에는 열병합 발전 기술이행에 대한 3개 프로젝트, 열펌프 설치에 관한 25개 프로젝트, 102개의 전기난방·온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바이오연료로 보일러 시설을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 45개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포함됨

- 우크라이나의 난방 · 온수공급과 같은 공공서비스 인프라는 크게 노후 되었기 때문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예산문제가 해결된다면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풍력발전 프로젝트

- 우크라이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보존청(National Agency on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Preservatio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은 2010년에 약 2억 4,000만kwh에 불과 했지만 2012년에는 10억 1,7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 중에서도 풍력발전 잠재력은 3만 GWh로 추정되며 풍력에너지 개발 측면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크림반도의 흑해연안 및 아조프해 연안지역, 자뽀로지아, 도네츠크, 헤르손, 니콜라예프, 오데사지역 등이며 일부 르보프 및 이바노프란코프스크지역도 해당함

<2030년 우크라이나의 풍력발전 전망>

연번	지역명	풍력발전능력(MW)	풍력발전능력(%)
1	Crimea	3,700	23.1
2	Nikolayev	3,600	22.5
3	Kherson	3,500	21.9
4	Zaporozhye	3,200	20.0
5	Donetsk	2,000	12.5
-	합계	16,000	100.0

주 : 키예프 무역관 해외시장정보(2011.10.) 자료에서 발췌

자료 : 우크라이나 과학아카데미

- 우크라이나 풍력발전시장은 흑해연안, 아조프해 연안지역과 서부 카파시안 산맥지역을 중심으로 뛰어난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풍력발전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승인받고 필요한 토지 조사를 하는 작업 등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현지 기업이나 정부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공급하는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마. 아제르바이잔

□ 석유화학단지(Oil and Gas Processing Complex) 건설 프로젝트

- 바쿠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가라다흐 지역(상가찰 터미널 근처)에 신규 오일·가스처리 및 석유화학단지 건설 추진
- 동 단지에는 정유시설·가스처리시설·석유화학플랜트 및 전력발전소 4개 부문 순서로 우선순위 설정 및 건설 예정(150억 달러 규모)
- 연간 처리용량은 오일 1천만톤, 가스 100~150억 m^3 , 석유화학(폴리에틸렌 70만톤, 폴리프로필 13만톤, 벤졸 4만톤, 스티롤 11만톤, 질소비료 100만톤)

<참고사항 : 아제르바이잔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와 관련, 국영석유회사인 SOCAR사에서 4.10-12간 바쿠에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대림, 대우인터내셔널 현대 E&C,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참가신청을 완료
- 주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에서는 2011년 11월 SOCAR의 부부사장을 한국 초청하였으며, 국내 주요기업의 석유화학 시설을 시찰
- SK에서는 자사 울산 SK 석유단지 항공시찰을 제공하였음
- 또 최태원 회장이 작년 10월 31일 아제르바이잔을 방문 일함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면담하였는데 이 때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음

-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SOCAR(국영석유회사)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11.9.)하여 승인 대기 중이며, 라이선서 선정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 AGRI(Azerbaijan-Georgia-Romania Interconnection) 프로젝트

- 카스피해에서 생산한 가스를 조지아, 흑해, 루마니아, 헝가리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12~45억 유로 투입 예상)
- 2010년 9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루마니아, 헝가리 4개국 정상인 AGRI 추진을 위한 MOU(바쿠 선언문) 체결함
- 2011.1월, 4개국이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AGRI프로젝트 운영사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설립하고, 2011년 12월 타당성 조사 RFP 공고
- 동 프로젝트 역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국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국적 합작사업으로 진출할 경우 본부는 루마니아에 설치될 예정임

3. 진출 성공사례

가. 러시아

□ 한국야쿠르트 (한국, 식품업)

- 1990년대 극동(블라디보스톡)에서 도시락면의 인기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이루었으며 1999년 모스크바 사무소를 개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러시아 용기면 시장 1위 유지함
- 현재 꼬야(KOYA)라는 현지 브랜드를 구축하여 다양한 라면류 및 현지 음식인 감자 푸레, 오토밀 등 제품군을 다각화시켰으며 2010년 6월에 현지에 제2공장을 건설하였음

□ 롯데호텔 (한국, 호텔업)

- 모스크바 중심부 아르바트 거리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하여 현지 공무원들의 부패, 건설자재 통관문제, 하도급 및 납품 업체 관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2010년 8월에 오픈함
- 좋은 시설 구축 외에 오픈 이전부터 현지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에 만전을 기울여 '11년 5월부터는 모스크바의 206개 호텔 중 서비스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성황리 영업 중임

□ Auchan (프랑스, 유통업)

- 세계 14위 규모의 프랑스 유통업체로 2002년 모스크바에 1호점 개장한 후, 현재 모스크바에 25개, 다른 도시에 18개의 매장을 보유중
- 기존 러시아에 없었던 대형 할인 매장을 건립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저가 판매 전략을 채택해 성공을 거둠

나. 카자흐스탄

□ TengizCheroil(다국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 TengizCheroil 은 1993년 설립된 국제 자원개발 메이저 컨소시엄 회사로 총 투자금액은 약 200억 달러 규모임
- 진출 주요 목적은 카스피해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Tegiz 유전*의 개발, 탐사 및 채굴 사업이며 지분 참여 비중은 세브론이 50%, 엑손이 25%, 카즈무나이가스가 20%, Lukarco BV가 5%임
- * 확인 매장량은 약 90억 배럴, 연간 채굴량은 약 16억 배럴임
- TengizChevroil의 성공요인은 카자흐스탄 현지 지역의 사회환원 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것임

- 전체 직원(3000여명)의 81%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복지, 보건, 교육 등으로 8,9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및 자재를 현지조달을 기본으로 하여, 현지화 경영에 주력하고 있음

다. 우즈베키스탄

□ 대우 인터내셔널(한국, 섬유업 현지투자)

- 1996년 페르가나 지역에 약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우텍스타일 컴퍼니/DTC'를 설립하고 1997년 4월부터 방성공장을 가동하였으며, 1998년에는 제직 및 합사공장설비에 대한 투자도 진행함
- 2006년도에는 '갑을페르가나'을 인수하여 '대우텍스타일 페르가나'를 설립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연간 면사 20만톤, 면직물 1,500만톤을 생산하고 2008년 4월, 추가로 4,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부하라텍스타일'의 일부 공장을 인수하여 방적 6만추 생산설비를 보유
- 결과적으로 (주)대우는 우즈베키스탄에 3개의 방적공장을 보유하여, 우즈베키스탄 최대 방적업체로 부상하여 우즈베키스탄 방적분야의 전체 생산량의 16,3%를 차지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의 원면을 100% 사용하여 면사와 직물을 생산하고 있는 DTC는 유럽으로 약 80%이상 면사 및 면직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 및 우리나라 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음
- 성공요인으로는 생산에서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 생산 및 품질의 표준화를 실현, '오아시스' 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여 바이어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한 점을 꼽음
- 대우 인터내셔널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은 가장 성공적인 외국기업 투자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Mobile Tele Systems(러시아, 통신업)

- Mobile Tele Systems(이하 MTS)는 우즈베키스탄 이동통신 시장의 54%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통신업체임
- MTS가 처음 우즈베키스탄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한 것은 2004년 7월로,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이동통신 시장은 인구의 약 1.5%만이 이동통신을 이용할 정도로 발전 수준이 미미한 상태였음
- 2004년 7월 우즈베키스탄 최대 이동통신회사 '우즈돈로비타의 주식 74%를 1억 2,100만 달러에 매입하였고 2007년 추가로 나머지 지분을 2억 5,000만 달러에 매입하여 우즈베키스탄 최대 이동통신 회사로 부상함
- 러시아 최대 통신 사업자 중에 하나로 우즈베키스탄 이동통신 시장의 발전을 정확히 예측하고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선 것이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됨

라. 우크라이나

□ 영산 키예프(한국, 현지 수출입 및 제조업)

- 영산그룹의 해외지사로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보일러(HVAC), 광케이블, 화학제품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 현지 제조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현지 조립 및 생산 체계를 구축,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으며 이러한 현지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주변국(러시아, CIS 국가, 유럽, 아프리카 일부)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였음
- 우크라이나는 투자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주변국에 비해 물가 및 임금수준이 높아 인접국가(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기업에 원자재 공급이나 합작회사 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마. 아제르바이잔

□ SK C&C(한국, ITS 구축 프로젝트)

- 당초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바쿠 ITS 구축 프로젝트 발주시 발주 범위가 '설계'까지여서 대부분의 관련 국내업체는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SK C&C는 향후 가능성을 보고 동일한 조건에서도 사업 참가를 결정하고 응찰 하였음(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는 삼성, LG 등에 참가를 권유하였으나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참가치 않음)

<참고사항 : 프로젝트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바쿠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구축 - 기 간 : 2008. 10월 ~ 2011. 12월 - 금 액 : 약 1.4억 달러 |
|---|

- SK C&C는 현지 정부의 느린 의사결정과 미온적인 반응(심지어 삼개월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자료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잦은 현지 출장을 시행하는 등 끈기 있는 응수로 현지 정부에 신뢰관계를 구축함
- SK C&C사의 러시아어 구사직원이 통역 없이 현지 정부(아제르바이잔에서는 대부분 관료들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함)와 직접적으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도 유효하게 작용하였음
- SK C&C사의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력이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 구축 단계로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V. 결론

1. 경제협력 기본 방향

- 교역 확대와 동시에 장기적인 프로젝트 및 투자 진출에 주력
- 앞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가입 및 역내 통합 과정에서 CIS 주요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를 확대 또는 신설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제공 요건을 강화하고 일부 제조 산업에 대해서는 자국산 부품 사용의 무 비율을 높임
 - 또한, 공공조달 대상이 되는 외국산 품목의 경우, 최종 가격보다 15% 낮게 공급할 것과 대상 품목도 축산물 및 일부 농산물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중임
- 반면, 자국의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부 육성 대상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한 5대 핵심산업 】

- ① 에너지 효율화(신재생에너지 등) ② 원자력 기술
- ③ 우주기술 ④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 ⑤ 전략정보기술(수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정보기술)

- 관세동맹 및 경제공동구역 설정 등, 추후 CIS 국가간 경제통합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거점 국가로의 투자는 향후 주변국 진출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함
- 향후 경제 통합 및 지정학적 위치 등, CIS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물류, 인프라, 에너지 섹터 확대에 집중하고 있음

2. 진출시 유의사항

가. 시장진출 애로사항

- ☐ 특정 지역 및 산업 섹터에 의존적인 구조, 높은 시장진입 장벽 등
 - 원유, 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73%를 차지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최대 교역 파트너인 EU 경제 침체 지속시 경제 위축이 우려됨
 - High Cost(높은 물가), High Language Barrier(높은 언어장벽), High Risk(높은 비즈니스 위험도)로 초기 진입장벽 상존하고 있으며 자본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어려움
- ☐ 구소련 구성공화국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문제점 잔존
 - 사유화 과정에서 관료들의 부정부패, 반시장적 관행 및 미약한 사법제도 등과 구소련시절의 낡은 생산설비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점이 미해결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
 - 외국 기업의 역할은 주로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 공동 투자 등에 제한되어 있음
- ☐ 현지 프로젝트 진출 수행기반 난해
 - 프로젝트 수주방식이 공개입찰방식보다는 주로 브로커 위주의 수의 계약 방식이 일반적. 이에 정보입수에 한계가 있으며 투자진출이 확정되었어도 투자규모 및 절차방식 계획수립이 난해함
 - 발주자의 수요에 의한 수행이 아닌 투자진출기업에 프로젝트가 역입안되어 현지 발주자에게 제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의 역할이 커 인맥 없이는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수 있음

나. 비즈니스 참고사항

☐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고려

- CIS 국가중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일부 국가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중동의 이슬람 국가와 비교하여 종교에 대한 금기사항은 적은 편

- 한국 사람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배경지식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취향을 드러내거나 종교를 대화 주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을성은 필수

- CIS 지역은 민족성 자체가 여유롭고 느긋한 편이며 과거 소비에트 연방시절 사회주의 체제가 남아 있어, 일처리 방식도 느리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종종 있음

- 담당자가 아니면 관련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행정처리가 아직 전산화 되어있지 않으며, 형식주의로 인해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를 인지하고 거래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4
12-002	가속화되는 일본기업의 인도진출과 대응	2012.4
12-003	일본의 新고령세대, 새로운 시장을 연다	2012.4
12-004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파워 엘리트 100인	2012.4
12-005	푸틴 3기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러 경제관계 전망	2012.4
12-006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동향과 시사점	2012.5
12-007	프랑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및 동향	2012.5
12-008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	2012.5
12-009	쿠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쿠바 협력 방안	2012.5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유럽 대형 유통망 조사	2012.1
12-00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장구조 변화와 유망시장	2012.1

☐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유럽한류와 국가브랜드 조사 보고서 -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대학생들 중심으로-	2012.2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2
12-002	대이란 추가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	2012.2
12-004	미얀마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12.3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러시아연방 경제산업개발 프로그램 - 2006~2015 러연방 체육 및 스포츠 발전	2012.1
12-002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2012.1
12-003	2012 글로벌 마켓 동향 및 진출 전략	2012.1
12-004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2.1
12-005	한국 투자가이드	2012.1
12-006	Doing Business in Korea	2012.1
12-007	韓國投資指南	2012.1
12-008	韓國投資ガイド	2012.1
12-009	FDI 및 초국적기업 운영 통계에 대한 UNCTAD 훈련 교본	2012.2
12-010	201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2.3
12-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1	2012.3
12-012	韓-美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대응전략	2012.3
12-013	해외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2년 개정증보판)	2012.4
12-014	중국 화상경제권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2012.3
12-015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2012.4
12-016	Inward FDI 통계 선진국 벤치마킹 조사	2012.5
12-017	IT 기업 일본 시장 진출 내비게이터(Q&A집)	2012.5
12-018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5
12-019	블랙 다이아몬드를 잡아라 : 아프리카 주요국 유망상품 진출전략	2012.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 KOTRA 해외공공조달포럼	2012.1
12-002	2012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2.1
12-003	2012년 중국-중남미 포럼	2012.1
12-004	인도-인도네시아 포럼	2012.1
12-005	2012 러시아 포럼	2012.1
12-006	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	2012.2
12-007	한-미 FTA시대, 중소기업 새로운 길 열렸다	2012.2
12-008	위기 속의 유럽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2012.2
12-009	떠오르는 희망, 신흥시장을 선점하라	2012.2
12-010	한-CIS 비즈니스 포럼	2012.3
12-011	한-미 FTA 활용, 美 보안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2.3
12-012	2012 글로벌 에너지 플라자 연계 세미나	2012.5

12-013	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on Forum 2012	2012.4
12-014	한국투자환경설명회	2012.4
12-015	[한중수교 20주년]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2012.4
12-016	2012 글로벌 공향/철도기자재 조달플라자	2012.4
12-017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2012.5
12-018	글로벌인재사업 심포지엄 2012	2012.5
12-019	Chemical Innovation with Korea	2012.5
12-020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 100배 활용하기 세미나	2012.6

작성자

◆ 모스크바 무역관	오명훈 과장
◆ 키예프 무역관	유희숙 관장
◆ 알마티 무역관	김정훈 차장
◆ 바쿠 무역관	홍 희 관장
◆ 타슈켄트 무역관	김하민 과장
◆ 신흥시장팀	오기찬 사원

Global Market Report 12-010

CIS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및 유망 프로젝트

발행인	오영호
발행처	KOTRA
발행일	2012년 6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